

# 전주 야행, 또다른 시간의 문 연다

내일 한옥마을 등에서  
지난달에 이은 2회차 행사  
국악공연·매사냥 시범 진행

전주문화재 야행이 24일 경기전·오목대·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또 다른 시간의 문을 연다. 이번 야행은 지난 5월에 이은 2회차 행사. 해설사와 함께 6월의 시원한 밤공기를 가르며 떠나는 골목투어 '별빛기행'을 비롯해, 경기전 광장에선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줄타기(권연태연희단)와 가곡(전라정가진흥회)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전주문화재 야행을 통해 새로운 야간공연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목대에선 한국 전통음악 특유의 깊은 울림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국악인들이 소리와 기악연주를 선보인다. 소리문화관에서는 2010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매사냥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기능보유자 박정오 응사가 시범을 보인다. 이와 함께 선자장 엄재수 선생의 합죽선 제작시연 등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큐브형 한지등 만들기 체험과 중앙



전주문화재 야행이 24일 경기전·오목대·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야행은 지난달에 이은 2회차 행사다. 사진은 지난달에 열린 야행.

초등학교 운동장에 걸린 대형 미러볼에서 쏟아지는 현란한 빛 조각의 움직임을 만날 수 있다.

전주문화재 야행 추진단의 김경미 총감독은 "미러볼과 한지 등을 통해 더욱 화려해진 전주한옥마을의 야간경관을 즐기고,

전주문화재야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김은석

## 내일 국립민속국악원서 김은석의 '적벽가'

24일 열리는 국립민속국악원의 토요국악초대석 판소리마당에는 소리꾼 김은석이 출연해 '적벽가'를 부른다. 적벽가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가장 호방하고 남성적인 소리의 대표작으로 소화하기 힘든 판소리로 꼽혀왔다. 군신간의 충의를 주제로 다루며 사대부 계층이 좋아했다. 선보일 눈대목으로는 공명이 남병산에서 바람을 비는 대목부터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의 원혼이 새가 되어 조조를 보고 원망하는 새타령 대목까지 연희한다. 젊은 소리꾼 김은석은 제4회 전주대사습놀이 일반부 판소리 차상, 제14회 익산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재직 중이다. 고수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지도단원 서은기가 맡는다. /정해은 기자



벼리국악단

## 우진문화재단, 벼리국악단 초청 '우리소리 우리가락'

### 25일 우진문화공간서 공연

우진문화재단의 '우리소리 우리가락'이 25일 오후5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우리소리 우리가락은 재단이 젊은 공연 예술가들에게 창작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 이날 무대에는 벼리국악단이 올라 '벼리놀이 여름 평상에서'를 선보인다. 국악단은 10명 남짓한 작은 공간 안에서 13명의 청춘이 모여 그들의 꿈을 노래한 '청춘팩토리' 첫 사랑의 풋풋했던 추억을 그려낸 '그리움의 편지', 제주민요 이어도

사나를 주제로 바다여인들의 간절함을 담담하고 흥겹게 표현한 '숨소리'를 들려준다. 또 뽕잎을 따다가 누에를 치면서 부르는 노동요인 '함양양잠가'는 남도민요 특유의 전통적인 선율에 재즈피아노를 더해 현대적이고 쉽게 풀어내 소개할 예정이다. 벼리국악단은 2010년 도내의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들은 한국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창조, 이를 통해 새로운 한국음악이 전 세계로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활동을 해오고 있다. 공연은 전석 1만원.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전통문화전당, 타악연희원 아귀와 '타톡' 진행

타악의 리듬을 관객들이 직접 전율하고, 느끼며 토크콘서트로 진행되는 난타 공연이 화제를 모을 전망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타악연희원 아귀와 공동으로 우수레퍼토리공연 '타톡(打-Talk)'을 진행한다. 타톡(打-Talk)은 '때릴' 타(打), '대화하다'의 영문표기(Talk)를 합성한 것으로,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며 토크를 벌이는 콘서트 형태의 공연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총 5회 운영될 계획이다. 공연은 마칭타악 퍼포먼스 '탐스'(5분), 타악합주 '군악'(10분), 타악합주 '무아'

(10분), 난타퍼포먼스 '굿타'(15분), 모리 '자.선.골.취'(5분), 퓨전타악 '휘락'(15분) 등 6개의 막으로 총 60분 간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연주자와 타악기마더의 가치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감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아귀 특유의 재치와 신명나는 가락의 향연을 맘껏 뽐내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은 특히 서양의 마칭타악을 모티브로 한국의 전통 길놀이의 느낌을 기미한 마칭타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북과 모듬북의 타악 협주, 다양한 톨을 활용한 모듬북, 리듬놀이를 통한 관객과 소통하는 난타 퍼포먼스, 연희성과 놀이적 요소를 가미한 퓨전 타악으로 진행된다. /안재용 기자

## 무주군, 오늘부터 이틀간 '락 페스티벌'

무주군은 오는 23일과 24일 무주읍 남대천 특설무대에서 2017 무주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3일에는 전북도 14개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가입돼 있는 락밴드 동아리 8개 팀(무주 레인보우, 김제 엔젤스, 군산 파도소리 방파제, 전주 펜타프리모, 정읍 레드 썬, 진안 조아라밴드, 군산 소울뮤직, 무주 클라임)이 참가하는 '전북권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이, 24일에는 무주군의 가디록과 셋두리, 공주시 공백, 서울 치타슬로, 경북 G#, 전주시의 Blue Bird 등 6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날은 특별 게스트로 가수 김중서가 출연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세계태권도대회 열기로 가득 찬 무주군 전역에 락 페스티벌이 흥과 재미를 더해줄 것"이라며 "주말 저녁 아름다운 무주남대천에서 아마추어 락가들이 전하는 초 여름밤의 음악선물을 만끽해보시라"고 말했다. 한편 '좋아! 별보고 장보고 만나고 반딧불 야시장'도 24일 저녁 7시 30분부터 무주읍 반딧불장터에서 열린다. '내일을 기다려, 장난감 병정, 문밖에 있는 그대' 등을 부른 가수 박강성이 이날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지역출신 가수 이경환, 이정자 씨의 듀엣무대도 마련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단풍미인 쇼핑물에서 펼쳐지는 한발 빠르게 만나는 건강한 여름!

## 신선함이 팡팡 터진다! <계절농산물 판매>

평나무에서 열리는 달콤한 열매  
**오디**

무더운 여름 기운이 북돋  
**복분자**

티원지 선정 10대 슈퍼푸드  
**블루베리**

달고 맛있는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

단풍미인쇼핑물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모든제품 100% 무료배송**

전국 어느 곳이나 **우체국택배**로

네이버, 다음에서 단풍미인쇼핑물을 검색하세요!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문의 전화 : 080-535-4345(무료), 063-532-4345

**예약 및 배송**  
- 베리류 배송은 예약주문 순 수확 후 순차 발송, - 단풍미인씨없는 수박 1차 6. 12일, 2차 6. 29일 일괄배송